성명서: 한국전쟁 70 주년에 즈음하여

정희수 감독(위스컨신연회)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 : 21-22)

70 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위의 성경구절에 나오는 숫자는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반도에 용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분단과 폭력을 멈추고, 갈라진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통일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별이 너무 깁니다. 3 세대가 넘는 지난 70 년 동안 많은 가족이 헤어져 지냈습니다. 시편 90 편의 모세의 기도에 따르면, 70 년은 한 인간의 온 생애입니다. 한 생애를 헤어져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화해하고 다시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70 년간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닌 정체성의 핵심이며, 예수께서는 평화를 조성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3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인정하고, 높여주기 위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을 준비시켜야 하는 어려운 노력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은 그 계획을 이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공하여, 평화와 정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소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지키며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할 형식과 관행을 구체화하며 포용합니다.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건설하며,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사역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역입니다.

또 하나, 평화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의 주된 책임은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비전을 위한 묵상과 명상,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관심을 두는 자세는 평화의 사역을 위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줍니다.

70 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분쟁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한반도에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비전이 나타나고, 이 비전이 전 세계 공동체를 위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임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평화와 정의의 옹호자가 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한 다음 행동합시다. 우리가 한국과 온 지구상에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건설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